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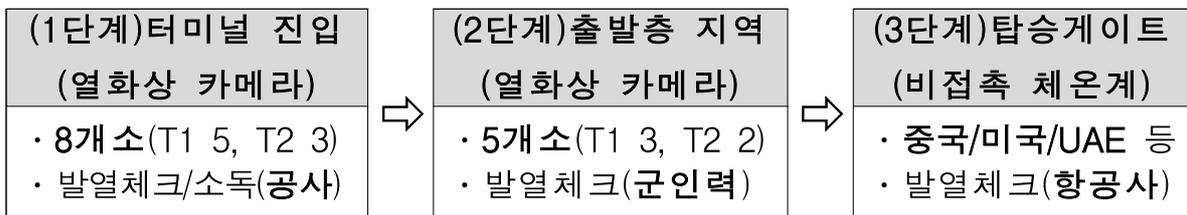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 2020. 3. 5(목) 총 5매(본문 2매)		
담당 부서	코로나19 대응 긴급항공상황반	담 당 자 · 항공정책과장 김기대, 사무관 정재웅, 주무관 안승현 · ☎ (044) 201-4204, 4189, 4190		
		담 당 자 · 국제항공과장 신윤근, 사무관 황성필 · ☎ (044) 201-4207, 4215,		
	인천국제공항 공사	담 당 자 · 여객서비스 처장 신가균, 운영기획팀장 김홍수 · ☎ (032) 741-5204, 5552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가능합니다. 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종료 이후 배포)		

##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

### 터미널 진입 → 출발층 → 탑승게이트에 걸쳐 3단계 발열체크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구본환)는 인천공항 도착(T1, T2)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과정 쏠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3월 5일부터 시범도입 한다고 밝혔다.
- 이와 같은 사항은,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검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3월 5일(목)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,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3월 9일(월) 09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.
- 이에 따라, 3월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 → 출발층 지역 → 탑승게이트 3단계에 걸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체크를 시행할 계획이다.

#### < 3단계 발열체크 >



\* 1단계, 2단계는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확인시 비접촉 체온계로 개별체크

○ 먼저, 터미널 진입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하며, 37.5℃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.

○ 다음으로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번 더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, 37.5℃ 이상\*이면서 상대국 요청(발열자에 대한 입국 제한)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에 인계 등 발권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
\* 미국의 경우 38℃이상 승객은 탑승 거부(교통보안청(TSA) 지침기준)

○ 마지막으로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\*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체크를 시행하며, 이 노선에서는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.

\* 현재 미국, 중국, 아랍에미레이트 노선에 대해 시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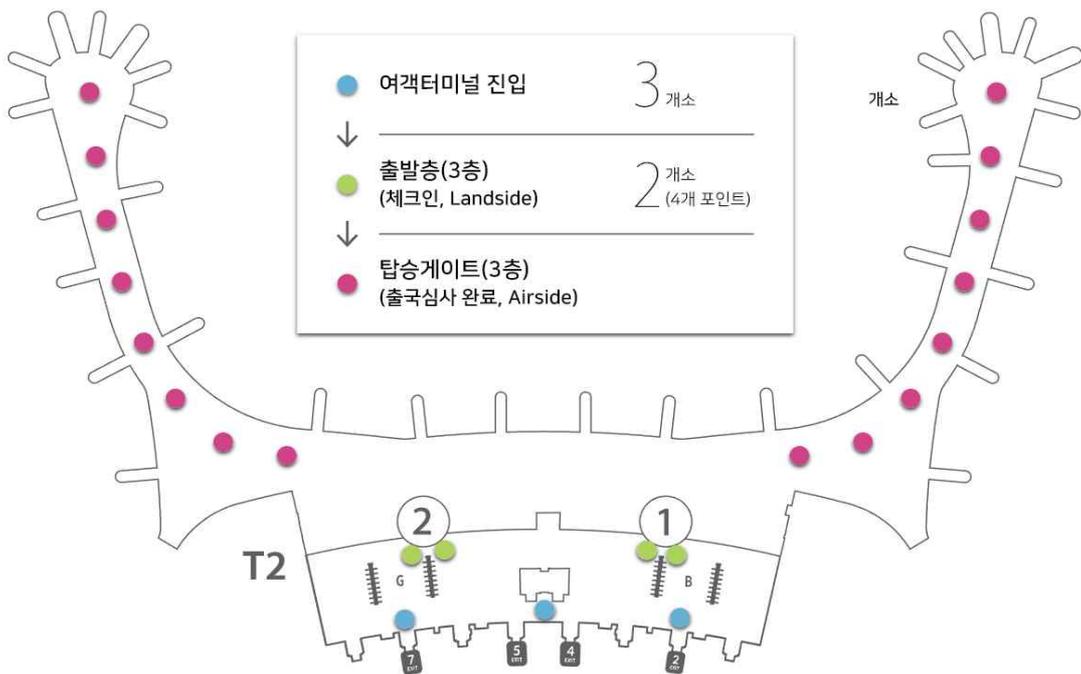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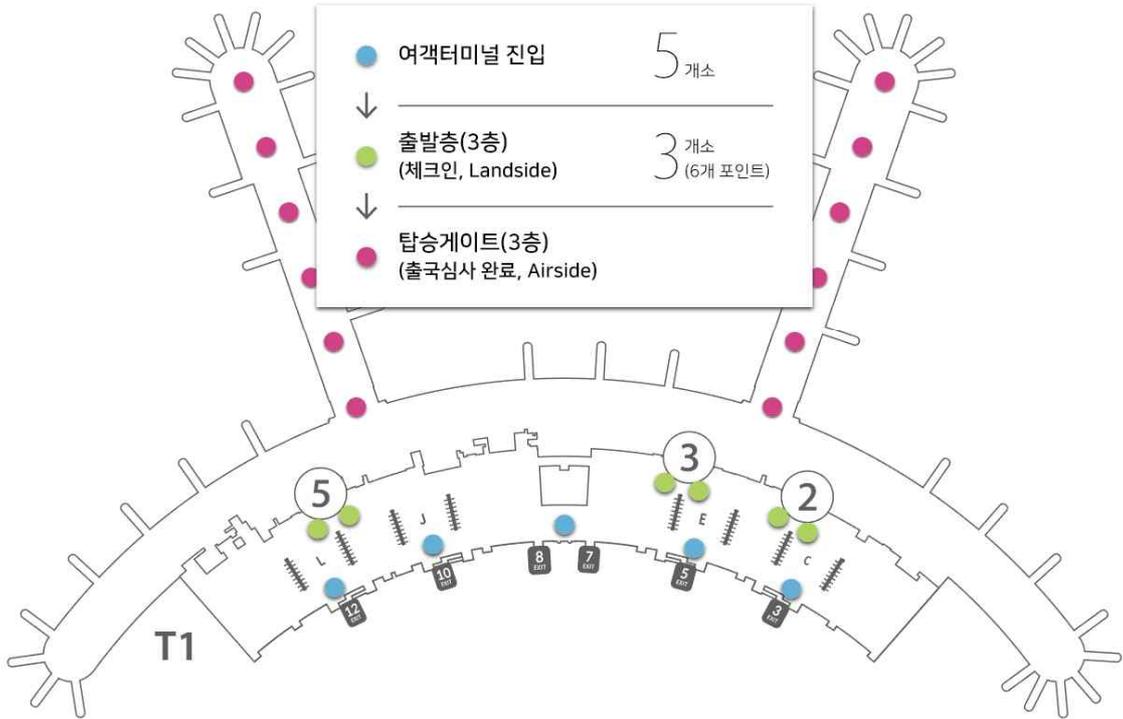
□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“이번조치를 통해 공항도착부터 출국 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, 국내·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○ “아울러, 출국 전 발열체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 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체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”고 덧붙였다.

□ 한편,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“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‘COVID-19 Free Airport’로 구축하여 출국 및 입국 쏠 과정에서 안전한 공항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정재웅 사무관(☎ 044-201-41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참고2

## 3단계 발열체크 및 검역조사실

(1단계) 터미널 진입 발열체크



(2단계) 출발층 발열체크



(3단계) 탑승게이트 발열체크(미국, 중국, UAE 등)



T1 검역조사실(2층 중앙 예방접종실)



T2 검역조사실(3층 동편 패밀리라운지)

